

김하성 스리런...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키움 김하성이 25일 잠실 LG와 더블헤더 1경기 3회초 2사 1·3루서 호쾌한 스윙으로 3점포를 터트리고 있다. 시즌 10호 아치를 그린 김하성은 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정실 | 주현희 기자 teeh1147@donga.com

LG 월스 직구 통타 시즌 10호
LG 상대 2연속경기 홈런 폭발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이 시즌 10호 홈런을 때렸다. 25일 잠실 LG 트윈스와 더블헤더 1경기의 승패를 가름하는 귀중한 결승타였다.

밥상은 뜻밖에 차려졌다. 0-0으로 팽팽하던 3회 1사 1·2루에서 서건창이 병살타성 땅볼을 때렸다. 허리부상 탓에 경기 내내 허리를 제대로 숙이지 못하며 수비에 애를 먹던 LG 1루수 로베르토 라모스가 타구를 쉽게 잡았지만 유격수 오지환에게 던진 공이 베이스를 벗어났다. 오지환이 간신히 다이빙하듯 잡아 2루로 뛰어오는 주자를 포스 아웃시켰지만 쉽게 끝낼 이닝이 이어졌다. 2회까지 연속 3자 범퇴를 시키며 순항하던 LG 선발 타일러 월슨도 흔들렸다. 김하성은 2사 1·3루 볼카운트 2B-1S에서 낮은 직구를 잡아당겼다. 왼쪽 관중석에 떨어지는 결승 3점 홈런. 23일 LG전 6회 솔로 홈런을 포함해 2연속경기 홈런이자 KBO 통산 49번째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다.

키움은 이번 시즌 8경기에서 잘 던지 고도 승운이 따르지 않아 2패만 기록한 선발 이승호를 앞세워 쉽게 앞서나갔다. 4회에는 라모스의 아픈 허리가 만들어준 김해성의 1루 쪽 내야안타 등 3연속 안타로 잡은 기회를 서건창의 적시타로 살려 4-0으로 달아났다.

LG는 5회 1사 1·3루에서 김현수의 중전적시타, 계속된 1·3루에서 라모스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쫓아갔다. 라모스와 이승호의 대결이 분수령이었다. 라모스는 이승호의 1,2구째를 잘 쳤으나 그라운드 안으로 타구가 들어오지 않았다. 풀카운트에서 친 공도 정상의 몸 상태였다면 홈런이 분명했지만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우익수에게 잡혔다.

LG벤치는 2-4로 뒤진 8회 2군에서 호출한 이상규를 점검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6일 키움전에서 1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9회 말 끝내기 역전패를 당한 뒤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소방수 이상규는 여전히 흔들렸고 0.2이닝 동안 3개의 4구를 남발하며 실점해 추격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경기는 5-2로 끝나 LG는 5연패를 키움은 7연승을 기록했다.

정실 | 김충건 기자 marco@donga.com

야구

스포츠동아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3

KBO리그 경기결과 ▶ 25일				
잠실	키움	5	〈DH〉	2 LG
인천	두산	14	〈DH〉	6 SK
수원	NC	3	〈DH〉	1 KT

토론토 선수·직원 코로나19 양성...류현진은 음성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새 시즌 활약할 무대가 미국일지 캐나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스포츠넷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스프링캠프 류현진 프지에서 훈련 중이던 복수의 토론토 선수와 직원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류현진과 통역, 트레이너 등의 지원 스태프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7월 1일 단체훈련 소집 후 23일 또는 24일 개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캠프와 시즌을 치르게 해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제안했다. 토론토는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 연고팀이라 국경을 오가야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 “20% 관중 입장은 큰 문제 없다”

야구장 관중들 모두 한 방향만 주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지키면 가능
장내 취식·육성 응원·폐창은 금지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계기될 수도

개막 후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하지만 야구장은 코로나19를 뚫고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돼있다.

● “20%만 입장하면 문제없다”

관중입장 통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관이다. 정부의 지침 없이 관중입장도 없다. 영화관, 워터파크 등 실내여가시설은 물론 해수욕장 같은 야외시설에 이어 프로 스포츠에도 빗장이 풀릴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야외스포츠, 특히 프로야구와 축구 관중입장과 관련해 문체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연계해 발표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관중입장에 대한 의문 부호를 던진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구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문을 연 다른 여가시설들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 전문가들도 소수의 관중입장은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KBO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야구장에 입장한 관중은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다. 전체 수용인원의 20% 정도를 입장시킨 뒤 적당한 거리로 띄어 앉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

를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다.

● 20% 관중만 찾는 야구장, 이렇게 운영된다!

10개 구단은 KBO의 지침대로 관중입장시 매뉴얼을 구축해둔 상황이다. 관중입장 게이트를 홈과 원정 각 하나씩만 열고, 입장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둔다. 혹시 관중이 이를 놓칠 것에 대비해 바닥에 스티커도 전부 부착했다. 발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장은 어렵다.

입장 후에도 취식 및 육성응원은 자체 대상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입장 자체가 안 되며 관중석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퇴장 조치다. 티켓 판매는 온라인 예매로만 진행한다. 현장판매를 없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회원정보를 통한 추적이 용이해진다.

단체응원도, ‘폐창’도 당분간은 힘들다. 혹자는 “대체 그렇게 보는 야구가 무슨 재미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야구를 직접 볼 수 있다면 기꺼이 경기장을 찾을 팬들은 분명 있다. 이들의 갈증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분명하다.

● 상징성의 굴레, 반대로 생각하면?

일각에선 정부가 관중입장에 소극적인 이유로 KBO리그의 상징성을 꼽는다. 팬들이 모인 장면이 매일 생중계된다면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철저한 방역과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조금 불편해가나마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반향에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의 힘을 보여줄 수단임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

2 weeks

고함한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눈자 주름을 2주간에 개선

IOPE LAB

IOPE

RETINOL
EXPERT

RETINOL
|
0.1%

NEW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3.16~10.17 4주간 이중무작위대조군연구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